



‘이봐, 조심해!’ 온두라스의 후안 카를로스 가르시아(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스위스와와의 E조 3차전 도중 볼을 차려는 그라니트 자카의 발에 복부를 가격 당하고 있다. 마나우스(브라질) | 신화뉴스

5성급 호텔 1인 1실 전세기도 직항 노선

남장현 기자의 여기는 브라질

! FIFA가 제공하는 초특급대우?

32개국 선수당 1일 400달러 숙박비 제공
이동거리 길어 전세기·전용버스 항시 대기
물·이온음료, 공식후원사 제품만 사용 가능

1개월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는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다. 32개국만 초대받는 단일 종목의 대회지만, 30개 가까운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는 하계올림픽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대접도 상당하다. 경기를 치르기 위해 여러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각국 선수단의 편의를 위해 전세기부터 자그마한 음료수 한 병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챙겨준다. 이쯤 되면 ‘초특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14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한 ‘홍명보호’도 남부럽지 않은 지원을 받는다.

●최상급 숙소

홍명보호는 브라질월드컵 베이시캠프로 정한 세계적 관광지 포스 두 이구아수에서 5성급 호텔인 버번 카타리타스 컨벤션&스파 리조트에 머물렀다. 올 1월 국내와 위주로 동계강화훈련을 소화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도 이곳을 숙소로 사용했다. 당시에는 2인 1실이었지만, 월드컵 기간 중에는 1인1실을 쓰고 있다. 특히 호텔 측의 배려로 2·3층, 2개 층에 걸쳐 숙소를 예약했다. 이렇게 낮은 층을 선택한 이유는 식당, 훈련장 이동 때 선수들의 동선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선수들과 지원스태프를 합쳐 60여개의 방을 예약했고, 이 중 스위트룸은 3개를 잡았다.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회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방은 대개 스위트룸일 때가 많다.

물론 숙박비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전역 FIFA가 낸다.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당시 FIFA는 첫 경기 5일 전부터 마지막 경기 다음날까지 팀당 50명을 기준으로 1인당 400달러씩 지원했다. 이번 대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베이시캠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도 대극전사들은 모두 개인 객실을 사용했다. 러시아와의 1차전이 열린 아마존 남부 도시 쿠파이바(드빌), 알제리와 2차전이 벌어진 포르투 알레그리(홀리데이인), 벨

기에와의 3차전이 치러진 상파울루(풀만)에서도 태극전사들은 사생활을 보장받았다.

●최상의 교통편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워낙 넓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여의치 않다. 선수단은 남아공에서처럼 경기개최 도시로 움직일 때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FIFA에서 제공한 선수단 전용 전세기를 이용했다. FIFA는 출전국들이 조별리그 기간 중에는 베이시캠프와 경기개최 도시를 반드시 왕복하도록 규정했다. 토너먼트 라운드에 돌입한 이후로는 베이시캠프로 이동할지, 아니면 다음 경기가 펼쳐질 도시로 즉시 이동할지에 대해 각국 선수단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일반 팬들과 취재진은 이구아수에서 한국 경기가 열리는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 스케줄이 원활치 않아 상파울루 또는 쿠리치바 등 다른 도시를 경유해 비행기를 갈아타가며 이동했지만, 선수들은 무조건 직항노선이었다.

남아공에선 고속버스보다 좀더 공간이 넓은 80인승 소형 제트기가 제공됐으나, 브라질에선 요즘 국내 저가항공사에서 주로 운영하는 B737-800을 이용했다. 전세기 이용시간은 매년 대표팀과 FIFA가 조율해 결정했다. 그밖에 도시별로 해당국 대표팀 전용버스가 배치됐고,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가 착륙하면 곧장 공항 활주로에서 간단한 수속만 마친 뒤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다. 홍명보호는 조별리그 기간 중 쿠이아바에만 경기 이틀 전에 입성했고, 포르투 알레그리와 상파울루에는 경기 전날 도착했다.

●엄격한 FIFA 물품

음식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역별 한인상점을 통해 확보했지만, 물과 이온음료 등은 예외다. 무조건 FIFA에서 제공하는 제품만 쓸 수 있다. 모두 공식후원사 코카콜라 제품이다. 심지어 아이스박스도 물통 옮기는 도구까지 제공받았다. 이는 선수단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측면도 크지만, 후원사의 마케팅 권익을 보호해주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선수단 전용 대형버스와 물품을 나르는 8톤 트럭, 1.5톤 트럭, 산타페 1대씩을 제공 받았고 카니발 2대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또 선수단이 머문 각 호텔 주변에는 보안요원들이 24시간 배치돼 안전을 보장했다. 특히 이구아수에선 현지 경찰뿐 아니라 600여명의 브라질 육군병사들도 경호 서비스를 펼쳤다.

상파울루(브라질) |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월드컵 성적=국가경쟁력’...브라질서 당당한 벨기에

남장현 기자의 브라질 24시

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강호 탈락 속 벨기에 16강 조기확정에 자신감 상승
미디어·축구팬 등 최종성적 상향조정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원체 복잡하게 생각하는 기자들의 특성상 좋은 점보다는 나쁜 면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조별리그 3차전 상대 벨기에 취재진의 모습에선 당당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경기 전 공식 일정이 진행된 26일(한국시간)과 결전 당일인 27일 상파울루의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마주친 벨기에 기자들은 여유롭고 자신감도 가득하더군요. 국제대회에서 자신의 신분과 국가경쟁력은 성적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역시 괜한 소리는 아닌가 봅니다.

그렇 만도 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이번 대회에서 유럽은 맥을 못 추었습니다. 빅리그를 보유한 스페인, 잉글랜드, 이탈리아가 나란히 몰락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16강에도 오르지 못한 채 일찌감치 짐을 꾸렸습니다. 세계축구를 양분해온 유럽과 남미국가들은 아시아나 북중미 등 전혀 다른 환경의 제3의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면 각자의 터전을 떠났을 때 약해지는 징크스를 겪곤 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네요. 하지만 남미, 그것도 유럽의 ‘지옥’이라는 브라질에서도 당당히 이를



벨기에 마르크 빌모츠 감독(왼쪽)이 한국전을 하루 앞둔 26일(한국시간)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빌모츠 감독은 벨기에의 황금세대를 이끌고 이번 대회에서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했다. 상파울루(브라질) | 뉴스시

값을 하고 있으니 벨기에 기자들과 팬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도 벨기에 기자들은 만족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브라질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워낙 승승장구했으니, 기대치가 엄청 높았겠죠. 알제리와 러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2경기 만에 16강행을 조기에 확정해놓고도, 경기 내용은 영 아니었다나요?

헤트 나우스블라트의 누엔스 루디 기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빨리 탈락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우리처럼 영건 위주로 팀을 구성했는데, 그들에 비하면 피지컬,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우린 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국 대표팀 마르크 빌모츠 감독에게 비판을 가했

죠. 레퀴프의 블라리스 라파엘 기자는 “빌모츠 감독은 항상 같은 전략을 고수하는 사람이다.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했고, 벨기에 기자들 대부분이 이에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벨기에에는 H조에서 최강다웠습니다. 늘 비슷한 전술을 운영했다고 해도 항시 최고의 멤버, 든든한 리저브가 버티고 있었고 이는 벨기에의 변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럽축구의 판도를 깨뜨린 벨기에가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상파울루(브라질) |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더크게! 더단단! 더오래!

확대·조루·발기력강화
인체공학과 과학의 접목! ‘성기능강화용 링’ 발명특허



영화배우 이동준입니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지만 나이는 못속이더군요.
5년전 코메디언 ‘한무’선배님 소개로
‘뉴 맨’을 만났습니다.
효과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
‘뉴 맨’!! 최고입니다!!



대표이사 서영숙

60만 남성고객과 60만 여성이 함께하는
‘뉴맨’의 효과!!

왜소하고 빠르다! => 30%이상 커지면서 시간이 연장된다!
힘이 약하다! => 20대때 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진다.
중간에 시든다! => 단단한 강직도가 끝나도 쉬 시들지 않는다.



*제품의 자세한 구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15일 사용후 효과없을시 100% 반품·환불!!

핸드폰에서도 주소창에 newm.kr만 입력하세요.

NAVER 뉴맨 www.newm.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이즈는? ※사이즈 단위는 cm입니다.

평상시 사이즈(cm)	65	65	67.5	7	75	77.5	8	82.5	85	87.5	9	92.5	95	97.5	10	102.5	105	107.5	11	112.5	115	117.5	12	122.5	125	127.5	13	132.5	135	137.5	14	142.5	145	147.5	15	152.5	155	157.5	16	16 이상
뉴맨 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	32호	33호	34호	35호	36호	37호	38호	주문 제작	

T. 1577-5579, 010-7636-3346

뉴맨! 60만 고객들과 전세계 20여개국 수출!

• 동경지사 T. 03-6233-8994
• 중국지사 T. 0433-286-5031

서울시 서초구 바우골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제이스프츠